



김진웅 정구 남자단식 金 '아시아 최강' 재확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 알렉산더 4-2로 꺾어

김진웅(28·수원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구 남자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웅은 29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센터의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정구 남자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엘버트 시(인도네시아)를 4-2로 꺾었다.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식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김진웅은 아시아 무대를 제패했다. 한국 정구의 아시안게임 남자단식 3회 연속 금메달이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이요한이 정상에 섰고, 2014년 인천 대회에서 김형준이 금메달을 땀다.

준결승에서 대표팀 선배 김동훈(29·순천시청)을 4-1로 꺾고 결승에 오른 김진웅은 금메달까지 품에 안았다. 아시안게임 정구 단식에서는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지 않아 김동훈은 동메달을 가져갔다. 여자단식에 나선 김지연(24·대구은행)은 8강에서 일본의 다카하시 노아에 3-4로 져 탈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 여자복식 은메달, 혼합복식 동메달을 땀던 김지연은 혼합복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메달 도전에 나선다. /뉴시스

◆ 김진웅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구 남자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엘버트 시(인도네시아)를 4-2로 꺾었다.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銅

AG 첫 정식 종목 출전 은주원



은주원(17·수택고)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스케이트보드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은주원은 29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센터의 스케이트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회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선에서 25.4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스케이트보드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처음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스케이트보드는 스트리트와 파크 두 가지 세부 종목으로 나뉜다. 은주원이 메달을 딴 스트리트는 계단과 난간, 레일 등 다양한 구조물에서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다. 예선에서 24.9점을 받아 전체 5위로 결선 무대를 밟은 은주원은 메달까지 품에 안으며 도쿄올림픽 기대를 높였다. 31.1점을 받은 이케 게이키(일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상고에 다르마 탄중(인도네시아)이 30.5점을 받아 은메달을 땀다. 남자 파크 결선에 오른 한재진(14·충남중)은 66.33점을 받아 4위를 차지했다. 최유진(17·경기플러스포츠연맹)은 42.00점으로 6위에 그쳤다. /뉴시스

'육상 경보' 김현섭, 4연속 메달 무산... 4위에 올라

남자 경보 20km서 1시간27분17초
3위 진시양치양에 1분36초 뒤져
여자 경보 20km 출전 전영은
1시간37분31초로 5위로 대회 마감



김현섭(사진 오른쪽)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경보 20km에서 1시간27분17초를 기록했다.

한국 육상 경보의 간판주자인 김현섭(33·삼성전자)이 아쉽게 아시안게임 4회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현섭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경보 20km에서 1시간27분17초를 기록했다. 김현섭은 1시간25분41초로 끝낸 3위 진시양치양(중국)에 1분36초 뒤진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김현섭은 10년 넘게 한국 경보를 지탱해 온 선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올림픽에 나서 한국 경보의 자존심을 세웠다. 2006년 카타르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나란히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4회 연속 메달권 진입을 바라봤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다. 초반 선두권을 유지하던 김현섭은 8km 구간부터 6위로 처졌다. 이후 5위를 지키다 막판 2km에서 스피드를 펼쳤으나 4위에 만족해야했다. 중국의 왕카이후이는 1시간22분4초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아마니시 도시카즈(일본)가 6초 뒤져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현섭과 함께 출전한 최병광(27·경향대)은 1시간29초49초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경보 20km에 출전한 전영은(30·부천시청)은 5위로 대회를 마쳤다. 기록은 1시간37분31초다. 4년 전 인천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전영은은 중반 이후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경쟁자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정은(24·부천시청)은 1시간40분14초를 기록, 7번째로 레이스를 끝냈다. /뉴시스



일본 농구선수 4명, 1년 출전금지... AG 성매매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중도 퇴출된 일본 남자대표팀 선수 4명이 1년 간 경기에 뛠 수 없게 됐다. 일본농구협회는 29일 도쿄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4명의 선수들에게 1년 간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징계기간 동안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하시모토 다쿠야, 이마무라 게이타, 사토 다쿠마, 나가요시 유야 등 일본 농구 대표팀 선수 4명은 지난 16일 카타르전이 끝난 뒤 여성 접대부가 있는 자카르타 유흥가의 가라오케에 갔다가 발각됐다. 이들은 성매매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1인 120만루피(약 9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일본농구협회는 이들 4명을 모두 귀국시켰다. 미쓰야 유코 일본농구협회장은 선수들과 함께 20일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사죄했다.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일본 남자 농구대표팀은 이란과의 8강전에서 67-93으로 대패, 5~8위전으로 밀려났다. 전반까지는 비교적 대등하게 싸웠지만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무너졌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